

## 말레이시아 2017: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

김형종\* · 홍석준\*\*

### <국문초록>

2017년 말레이시아는 총선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제 분야에서 핵심적 변수로 등장했다. 최대 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는 말레이계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인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과 공조를 강화했다. PAS의 탈세속주의(deseccularization)에 그간 세속주의(secularization)를 견지한 UMNO간 협력으로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의 부상을 수반하는 정치사회적 주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과 맞물려 말레이계의 지지가 차기 총선의 핵심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인종(종족)(Race), 종교(Religion), 충성심(Royalty) 이른바 ‘3R’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은 희망연합(PH)은 마하티르를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링깃 가치 하락이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였다. 외교에서도 말레이계 지지를 의도한 이슬람 관련 이슈에 집중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

\*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kimsea@yonsei.ac.kr.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B00016).

\*\* 목포대학교 문화인류학과. anthroh@mokpo.ac.kr.

세 속에서 외교적 원칙과 전략보다는 국제관계 역시 국내정치  
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  
치적 이슬람의 부상은 차기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 말레이시아 정  
치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마하티르 모하마드, 희망연합(PH),  
이슬람, ‘정치적 이슬람’

2017년 말레이시아의 정국은 14대 총선 이슈가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8월 이전으로 예정된 총선의 적기(適期)를  
두고 서로 저울질하는 여당측과 야당측의 추측게임은 정치권의 핵심  
변수였다. 여당측에서는 1말레이시아개발회사(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1MDB, 이하 1MDB) 스캔들에 따른 현 나집(Najib Tun  
Razak, 이하 나집) 정권에 대한 신뢰 하락을 만회하고자 노력하였다.  
최대 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UMNO, 이하 UMNO)는 말레이계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는데, 그 과  
정에서 야당인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rti Islam Se-Malaysia, PAS,  
이하 PAS)과의 공조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두 정당 간의 협력은 선거 연대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PAS의 탈세속주의(desecularization)에 그간 세속주의(secularization)를  
견지한 UMNO가 동조하는 형국으로,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의 부상을 수반하는 정치사회적 주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선거에서 ‘3M’ (money, machinery, media)은 여당연합인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 이하 BN)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구  
조적 요인이었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과 맞물려 말레이계의 지지  
가 차기 총선의 핵심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인종(종족)(Race), 종교

(Religion), 충성심(Royalty) 이른바 ‘3R’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Khaw 2017). 이에 더해 사바와 사라왁 지역의 지방정치(regional political powers)의 역할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sup>1)</sup>

야당은 민주행동당(Democratic Action Party, DAP, 이하 DAP), 인민공정당(Parti Keadilan Rakyat, PKR, 이하 PKR), 말레이시아뿌리부미연합당(Parti Pribumi Bersatu Malaysia, Bersatu, 이하 Bersatu), 국가신뢰당(Parti Amanah Negara, Amanah, 이하 Amanah)으로 구성된 희망연합(Pakatan Harapan, 이하 희망연합)을 중심으로 결속을 다지고 있다. 동성애 혐의로 복역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이하 안와르)이 차기 총선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희망연합은 Bersatu의 대표인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이하 마하티르)를 야당의 총리 후보로 추대했다. 마하티르의 선출은 오랜 정적인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연대로서 권력 교체 의 강력한 열망을 표현한다. 그러나 개혁을 표방하는 야당연합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현 말레이시아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장본인이 바로 마하티르라는 점에서 매우 역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와 외교 역시 직간접적으로는 이러한 총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링깃(ringgit, 말레이시아의 통화 단위)의 약세가 진정되고 경제성장이 회복됨에 따라 경제 부문의 급한 불이 잡힌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였다. 외교에서도 말레이계 지지를 의도한 이슬람 관련 이슈에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의 로힝가(Rohingya) 문제와 미국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 사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1) 지역별로는 사바와 사라왁의 정치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2017년에 사망한 아드난 사뎀(Adenan Satem)의 경우 주지사로서 사라왁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과 종교의 역할에 주목했으며 이는 다수의 중앙 정치세력에게 다종족사회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외교적 원칙과 전략보다는 국제관계 역시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I.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과 여당의 총력전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55조 4항에 따르면, 의회 해산 이후 60일 이내에 총선이 실시되어야 한다. 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총리가 의회 해산을 건의하면 국왕의 승인을 거쳐 의회가 해산된다. 사실상 총리가 총선 시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인 BN은 5년 기한 내 최적기를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BN은 지속적으로 총선이 임박했음을 밝히며 지지세력 규합을 위한 도구로 삼아왔다. 총선 시기에 대한 추측게임이 난무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말레이계의 지지 기반 정당인 UMNO의 총재이기도 한 나집 총리는 2017년 12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총선 준비를 마쳤다고 선언했고, 대회장에는 ‘나집 찬가’(Sayangi Najib)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총선 임박설이 총리를 중심으로 단결을 호소하는 데 이용되었던 것이다.<sup>2)</sup> 나집은 차기 총선이 “우리 투쟁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말레이계의 정치 권력, 말레이계 지도자주권, 이슬람의 존엄을 방어하기 위해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The Edge Market 2017/12/20). 2013년 선거의 패인을 중국계의 지지이탈로 규정한 바 있는 나집 정권은 차기 총선의 목표를 말레이계의 지지 확보에 두고 이에 주력하고 있다. 전 슬랑오르(Selangor) 주지사인

2) 2017년 8월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10월 총선실시에 대비하는 모임을 개최한 동영상 이 인터넷에 유포되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가 이를 교육목적의 가상적 상황이었다고 해명하는 사례가 있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2018년 중국설 이후 의회해산설이 유력하게 접쳐지고 있다.

무함마드 무함마드 따입(Muhammad Muhammad Taib, 이하 무함마드 따입)은 2017년 9월 UMNO에 재입당하며 나집의 환영을 받았다. 무함마드 따입은 어느 야당도 말레이계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sup>3)</sup>

BN 소속 정당들이 각기 다른 종족적 기반을 갖는다는 점에서, 선거가 임박한 상태에서 말레이계에 집중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이러한 활동은 전통적으로 자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MDB사건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나집 정권이 사건의 본질적 대응을 회피하고 있어 나집 정권이 스스로 광범위한 유권자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sup>4)</sup> 아울러 중국계의 지지가 되돌아올 가능성이 사실상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기도 했다. 이는 도덕성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당에 호의적인 농촌 지역의 말레이계를 상대로 정책을 펴는 한편, PAS와 느슨한 연대 추구를 통해 이슬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집이 주도하는 말레이계 집중의 핵심 파트너는 PAS이다. 압둘 하디 아왕(Abdul Hadi Awang, 이하 하디 아왕)이 이끄는 PAS가 희망연합을 거부한 핵심적인 이유는 DAP가 이슬람국가 건설에 대해 반대하고, 기독교를 부흥하려 한다는 숨은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나

3) 무함마드 따입은 한때 UMNO의 부총재(vice-president)를 지냈으며, 2013년 PAS에 입당한 후, 2015년에는 PKR로 당을 옮긴 바 있다.

4)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응을 내세우며 농촌지역개발부 장관을 지낸 모하마드 샤피(Mohd Shafie)와 조호르 주정부 내각인 압둘 라피프(Abdul Latif) 등 고위급 정치인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각각 구속되었다. 반부정부패위원회(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MACC)는 차기 총선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총선까지 정치인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야 성향의 기업인들이 탈세 혐의로 수십억대의 계좌 압류를 당하거나 구속되었다. Country Heights기업의 대표 리킵류는 1.26억링깃 상당의 계좌를 당국에 압류당했다. Supermax Corp 대표 라피다 아지즈(Rafidah Aziz)는 내부거래혐의로 5백만링깃의 벌금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2017년 4월 6일 의회에서 하디 아왕은 샤리아(Syariah, 이슬람법) 법원의 형법관할권과 관련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시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현재 샤리아 법정의 최대 선고 형량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5,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또는 6대 이하의 태형을 각각 30년 이하의 징역, 1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100대 이하의 태형으로 개정하고 궁극적으로 살인과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 권한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디 아왕은 지난 2년간 꾸준히 개정안 상정을 시도해왔다. 2015년 PAS가 집권한 끝란탄(Kelantan) 주의회에서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연방헌법과의 불일치로 인해 후두드(hudud, 이슬람형법)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연방정부도 PAS측과 그간 연방헌법과의 충돌과 관련 기술적 해결법을 논의해 왔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관련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회 일정과 하디 아왕의 개인 일정 등으로 본회의 논의가 연기된 후 PAS는 총선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다시 일정을 연기한 상태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었던 것은 세속주의를 표방해온 UMNO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론 또는 투표절차와 상관없이 하디 아왕에게 관련 개정안 발의에 대한 세 번의 의회 연설기회가 주어졌으며, 그러한 배려가 나집의 승인에서 나왔다는 것이 알려졌다. 하디 아왕은 이번 협력을 잊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의회 절차마저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Ting 2017). 전통적으로 UMNO와 PAS는 말레이계의 표를 두고 경쟁해 왔는바, 최근 양당의 협력은 인종(종족)과 종교와 관련된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연대로 풀이된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하디 아왕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 등의 악재를 제외한다면 PAS와의 연대는 적어도 총선까지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

다. 현재 하디 아왕은 나집 스캔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는 세속주의에 기반을 둔 말레이시아 헌법의 중대 변화를 의미한다. 올 초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각각 개최되는 등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PAS 등이 주도하는 찬성집회에 2만여 명이 참석했다. 반면 야당 등은 자치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것이 반이슬람과 반말레이계 정당으로 비칠 가능성을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7년 2월 기독교 목사 레이먼드 코(Raymond Koh)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2월 조사를 위해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이후 실종되었다. 코 목사는 뽀탈링자야(Petaling Jaya) 지역에서 복면 괴한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10월에는 코 목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회가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SUHAKAM)에 의해 10회 일정으로 공개 개최되기도 했다. 당시 위원장은 이 진상규명회가 형사 재판이나 민사재판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위원들에게는 진실과 정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강조했다. 이 진상규명회를 위한 위임 사항은 해당 사건이 형법, 민법 또는 적용가능한 인권법을 위반하는 인권강제적인 실종(혹은 비자발적인 실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슬람법 이행에 대한 반대와 개종시도 등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에도 현재 기독교 관계자 3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이들 실종자들이 종교문제로 연관되어 있다는 공통점과 관련하여, 최근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The Straits Times 2017/4/16).

탈세속주의의 강화와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더욱 확산, 심화되고 있다. 지난 9월 조호르(Johor) 지역의 한 빨래방에서 고객을 무슬림으로 제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업주는 “‘순결’한 세탁 서비스를 무슬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즉각적인 사회적 파장을 낳았으며 조호르의 술탄인 이브라힘 이스칸다르(Ibrahim Iskandar)는 이를 비판하고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업주가 사과하고 무슬림 전용 문구를 삭제했다.

나중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빠를리스(Perlis)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의견상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조호르 술탄의 관여에 대해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국’(Malaysian Islamic Development Department, JAKIM, 이하 JAKIM)의 관계자가 조호르의 술탄을 비판했다. 그 술탄은 JAKIM과 공식적 관계의 단절 의사를 밝히며 강력히 대응했다. 결국 문제의 JAKIM관계자가 체포되는 것으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집은 침묵을 지켰다는 점과 이에 동조하는 말레이계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 내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 또는 정치적 이슬람화(political Islamization)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말레이계가 신실한(good) 무슬림을 추구하며 종종 아랍문화의 지향을 보이기도 한다.

2017년 2월 나집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가 USD70억을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나스(Petronas)에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심화는 국내 정치적으로 이슬람 정통성을 홍보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한편, 많은 논란을 빚었던 JAKIM을 비롯해 다수의 정부 이슬람 관련 기관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학한 이슬람학자들(Ulama)이 대거 유입되면서 정치적 이슬람이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정치적 이슬람화의 경향은 나집 정권하에서 정책적 지원 속에 추진되고 있다. 나집 총리는 4월 24일 이슬람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8천만링깃을 뽀독(pondok, 전통적인 이슬람종교



학교)을 포함한 중등이슬람종교학교(SMAR) 등 이슬람 교육기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사이푸딘 까셈(Saifuddin Kassim) 총리실 소속 장관은 무신론자에 대한 강제적인 이슬람종교교육을 제안하기도 했다(Free Malaysia Today 2017/12/24). 나집은 2014년 6월 UMNO의 한 행사에 참석하여 “말레이계 정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신의 군사력의 30배에 달하는 이라크군을 물리친 중동의 군사조직(ISIS)을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도 있다(Malay Mail 2014/6/24).

급진 이슬람 인사에 대한 정부의 예외적 관용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인도 출신의 테러용의자로 주요 국가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자끼르 나익(Zakir Naik)의 말레이시아 체류에 대해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나익을 주요 테러 공격의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신변인도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은 그의 강제 출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PAS는 인도정부의 신변인도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뿌트라자야(Putrajaya)의 총리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이슬람사원(masjid)에서는 나익을 연설자로 초대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Joseph Hammond, 2017).

이와 같이 UMNO의 총선 전략으로서의 정치적 이슬람화가 PAS의 오랜 이념인 탈세속주의와 맞물려 서로 어색하게 손을 잡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어떤 정치적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무엇보다도 UMNO의 세속주의 원칙이 PAS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비도시 지역의 말레이계에 집중하는 이러한 전략은 그 밖의 국민들에게는 외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민은 다종족의 정치지형에 대한

선호를 지니고 있다. 말레이계 응답자의 62%는 “모든 정당이 다종족 기반이어야 한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계와 인도계는 각각 80%와 83%가 이에 동의했다. “모두를 위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종족에게만 특권을 쥐서는 안 된다”라는 질문에는 말레이계 47%, 중국계 85%, 인도계 88%가 각각 동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현재 말레이시아 내에서 말레이계 특권에 대한 우대정책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말레이계 특권에 대한 수용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말레이계는 4, 중국계와 인도계는 각각 2 안팎의 수준을 나타냈다(Lee 2017). 즉, 정치 지형에 있어 다종족적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레이계를 비롯해 다수의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말레이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정책적 보호와 특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적 특혜가 정치적 거래의 본질임에도 나집 정권이 탈세속주의 정치적 이슬람화를 이용함에 따라 총선 이후의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 역시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선거구획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야당에 유리한 도시지역구의 유권자 수는 여당이 유리한 농촌지역구보다 월등히 많아 대표성의 문제를 갖는다. 유권자는 별도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투표할 수 있으며 부재자 우편 투표는 제한적이다. 2018년 유권자 중 약 3백5십만 명이 아직 미등록 상태이다. 현재 부재자 우편 투표는 교사, 군인, 경찰로 국한된다.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 가야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투표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9개 정부 부처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70년 이후에 대폭 증가한 공무원의 절대다수는 말레이계로 정

부 지지의 주요 기반이 되어왔다. 버르시(Bersih) 등 시민사회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내 부재자 우편 투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버르시는 지난 13대 선거에서 최소 30석이 부재자 투표에 의해 결과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The Malaysian Insight 2018/1/10).

## II. 마하티르 중심의 희망연합(Pakatan Harapan)에 희망은 있는가?

2018년 1월 7일 희망연합은 공식적으로 Bersatu의 의장 마하티르와 PKR의 완 아지자(Wan Azizah, 이하 완 아지자)를 각각 총리와 부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공식 지명이 확정되는 순간 장내에는 “Hidup Tun”(똥 마하티르 만세!)과 “reformasi”(개혁)를 연호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마하티르는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야당후보로 받아준 안와르에게 빚을 졌다고 밝혔다.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즉각적으로 수감 중인 안와르에 대한 사면을 국왕에게 건의하여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안와르의 즉각적인 총리 승계를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한 상태이다. 여당 측은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총리실 장관인 압둘 라하만 달란(Abdul Rahaman Dahlan)은 마하티르가 야당측의 총리 후보로 추대된 것을 수치이자 비극이라고 폄하했다(Malaysiakini 2018/1/8). 현 말레이시아 정치의 구조적 문제 형성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마하티르의 전면적 정계 복귀가 개혁 지향의 야당에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야당이 마하티르를 차기 총선의 구심점으로 추대한 것은 사실상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리더십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둘의 관계가 파국을 맞은 1998년 이전까지 두 리더의 조합은 당시 말레이계 중산층의 성장을 이끈 황금기로 여전히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가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마하티르는 농촌지역의 말레이계의 다수에게 종족적 이익을 대변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정치적 자산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마하티르의 후보 추대는 안와르의 부재에 따른 대안적 성격이 짙다. 2013년 총선에서 BN은 2/3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유효 득표수에서도 당시 야당연합체인 민중연합(Pakatan Rakyat, 이하 PR)에 뒤졌다. 즉각적인 정치적 대응은 안와르에 대한 제2동성애 혐의로 재구속한 정치적 보복이었다. 결국 2013년 5년 구속 수감된 안와르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안와르의 부재는 야당연합내 분열 가능성을 높였다. 이슬람원칙에 기반을 둔 PAS와 주로 중국계의 지지에 기반을 둔 진보적 정당인 DAP 간 균형자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PAS의 탈퇴로 2015년 PR은 분열되었고 이후 등장한 희망연합은 의회 총 222석 중 74석을 보유하고 있어 야당의 정치적 약화가 불가피했다.

안와르의 부재 속에 PKR은 안와르의 아내인 완 아지자를 대안으로 삼아왔으나 일각에서는 PKR이 지나치게 안와르의 석방과 사면에 집중한 나머지 민생과 공공이슈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안와르의 정치 복귀와 야당 승리의 경우 총리직 수행을 위해서는 사면조치가 필수적이다.

마하티르는 2017년 7월 가디언(Guardian)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와르가 야권의 총리 후보가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그가 조속히 석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진영에 적합한 후보가 없을 경우, 자신이 야당의 총리 후보를 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The

Guardian 2017/7/6). 2018년 6월 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인 완와르가 총선 이전에 국왕의 사면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안와르는 2017년 6월 17일 야당의 총리 후보에서 자진사퇴했다.

마하티르의 총리 후보 지명을 두고 야당 연합인 희망연합 내에서는 이견이 존재했다. 특히, 마하티르의 탄압에 의해 탄생한 PKR의 경우, 막판까지 당내 이견의 격차가 컸다. PKR의 여성위원장 주라이다(Zuraida)는 마하티르에게 수석각료(senior minister)직을 제안하기도 했다(Malaysiakini 2018/1/8). 안와르는 옥중 서신을 통해 희망연합 내 지도자들 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요구하며 분열 가능성을 경계했다. 일부에서는 희망연합의 적은 희망연합 내부에 있다고 주장할 만큼 상이한 정당 간의 단결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시안인 것이다. 희망연합 내부에서 특히 Amanah 조호르(Johor) 지부는 차기 총선 공천에 불만을 제기하며 희망연합총리후보선출대회에 불참했다. 반도 내 총선 공천과 관련하여 각각 Bersatu 52석, PKR 51석, DAP 35석, Amanah 27석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Amanah의 지역적 기반인 조호르에 단지 2개 지역구에 출마하고 수도권 쿠알라룸푸르에는 한 명도 후보를 배정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DAP와 PKR은 Amanah의 불만을 인식하고 있지만 마하티르가 이끄는 Bersatu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이다. DAP 소속 의원 류찐퉁(Liew Chin Tong)은 “여당은 약하지만, 야당도 강하지 않다. 비말레이계의 야당 지지가 약해졌다”고 주장했다(The Edge Market 2017/1/17).

92세의 마하티르는 22년간 총리로 재임한 후 2003년에 사임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그가 야당의 실질적 중심으로 부상함에 따른 부정적 영향 역시 적지 않은 편이다. 현 말레이시아 정치의 구조적 문제 형성에 그 책임이 있는 마하티르가 과거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

임을 회피하고 다시 현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이 개혁을 내건 야당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마하티르 개인의 정치적 야욕의 연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08년 총선에서 BN이 2/3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야당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UMNO를 탈당하고 압둘라 아흐마드 바다위(Abdullah Ahmad Badawi, 이하 압둘라 바다위) 총리에 대한 비난에 앞장섰다. 결국 압둘라 바다위 총리가 사임한 이후 나집 총리 취임 후 마하티르는 다시 UMNO에 복당했다. 2015년 1MDB 스캔들을 앞둔 시점에서 압둘라 바다위 총리를 비난하던 마하티르는 UMNO를 탈당했다. 최근 PAS의 한 관계자는 마하티르가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탈당과 재입당을 반복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마하티르를 둘러싼 정부 당국의 조사를 철회하고 그의 아들인 무크리즈 마하티르(Mukhriz Mahathir)에게 정부 고위직을 부여할 경우 UMNO에 재입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Shukrimun 2018). 이러한 시각은 여당뿐만 아니라 마하티르의 개혁 의지에 대한 대중의 의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현재까지도 마하티르는 총리 재임 기간 중 인권탄압에 대한 시민사회의 사과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시 유권자의 경우 마하티르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야당 연합을 권력 쟁취의 수단으로만 여길 것이며, 이는 결국 권위주의 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나집 정권은 정계 복귀에 따른 마하티르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그를 견제하고 있다. 마하티르가 총리로 재직했던 1992년~1994년에 발생한 중앙은행의 315억링깃 외환손실 사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당시 금융스캔들로 의심받았으며 야당에서 진상 조사를 요구했던 사건이다. 나집은 이전 지도자가 만든 정실자본주의 문화를 깨뜨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시점

에서 이 같은 결정은 마하티르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작 나집 본인이 연루된 IIMDB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3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형국이기 때문이다.

1988년에 발생한 사법탄압 사건 역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하티르는 당시 사법위기를 불러왔던 대법원장(supreme court, 최고 법원으로 현재 연방법원, federal court로 개칭) 살레 아바스(Salleh Abas)의 해임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해임에 항의하는 대법원 판사 2명이 해임되고 3명이 직무 정지되는 초유의 사법탄압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압둘라 바다위 정권하에서 위로금 명목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sup>5)</sup>

사법부의 독립 문제는 단지 마하티르 정권 시기의 과거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사안이다. 2017년 7월 총리실은 퇴임하는 연방법원장과 항소법원장을 연방법원의 정원 외 판사로 임명했다. 이는 정원 외 연방법원 판사의 임명 자체의 위헌성과 66세 정년 규정 위반에 대해 변호사협회가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 사건으로, 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는 나집 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 시도로 풀이된다.

5) 당시 사법탄압은 1987년 UMNO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연장선에 있었다. 마하티르 중심의 기존 집권 세력은 1987년 당내 경선에서 툰구 라잘레이(Tunku Razaleigh)가 이끄는 이른바 'Team B'와의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승리를 선언했다. 승리를 예견했던 'Team B'는 경선 선거인단의 대표성에 법적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양 팀 간 정치적 합의의 실패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상대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던 대법원은 선거 무효를 판정했는데, 마하티르는 이에 불복하고 UMNO Baru(New UMNO)라는 새 이름으로 당명을 바꾸어 정권을 유지했다. 이후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 20여 명은 국왕에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1988년 사법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마하티르에 대한 정부의 견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8월 정부에서는 마하티르가 나집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음모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마하티르가 현 부수상인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드(Ahmad Zahid Hamid)가 나집 총리를 축출하는데 자신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마하티르의 아들 무크리즈 마하티르(Mukhriz Mahathir)가 나집의 언론 비서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손해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마하티르는 UMNO가 나집의 사당(私黨)이 되었다고 비판했다(The Straits Times 2017/1/17).

마하티르의 리더십이 갖는 태생적 한계와 PAS의 야당 연합 탈퇴로 인한 3당 구도로 치러질 차기 총선은 희망연합에게 쉽지 않은 선거가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연합은 여전히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나집 정권의 실정과 누적된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개혁 열망 때문이다. 2017년 Edelman Trust Barometer Malaysia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말레이시아의 정치제도와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으며, 말레이시아 정치가 정의롭지 못하고 희망이 결여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Khaw 2017). 야당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축적한 시민사회의 역량이 차기 총선에서는 확실하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시민단체들은 2018년 새해맞이 행사로 “Turun!”(뜻은 ‘내려오다’, ‘내리다’를 의미한다)을 외치며, 나집 정권의 퇴진과 물가안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가행진을 벌였다.

### Ⅲ. 경제동향

차기 총선에서는 실업률과 물가인상 등 경제현안보다는 종족과



종교문제 중심의 정치 과제들이 더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이는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 상황과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의 편성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세수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외국인투자의 역할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 여전히 약세인 환율 등 구조적 문제점들은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말레이시아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에서 5.8%로 상향 조정했다. 내수 증가와 노동시장의 조건 향상 등에 힘입어 2018년에는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BMI Research도 2017년 경제성장 전망을 기존 4.7%에서 5.3%로 상향 조정했다. 전자산업 분야의 수출 회복과 고유가를 반영하였고, 무엇보다 정부의 총선용 지출 증가를 이러한 상향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CNBC 2017/09/01).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 예산으로 2,802억링깃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지난 5년간 최대 규모이다. 2018년 예산 중 보조금과 사회적 지원금 관련 지출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265억링깃에 달한다.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은 구조적으로 인건비 등 기본 정부 운영예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개발예산 대부분은 고스란히 재정적자로 누적되어왔다. 2018년 누적 재정적자는 308억링깃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The Edge Market 2017/11/7). 2018년 예산은 재정적자 2.8% 수준에서 통제하고자 했는데, 이는 재정적자 확대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월 기준 USD80억에 달하는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등 점진적인 대외신인도 회복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도시 중산층의 야당 지지성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나집 정권은 농촌지역의 표심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다.

7월 나집 정부는 팜오일플랜테이션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채를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아울러 약 11만 명에 달하는 농촌 집단 생산거주지인 ‘펠다’(Felda) 거주자에 대해 약 16억링깃에 달하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부채탕감과 주택대출 그리고 5,000링깃의 지불금이 포함된다. 60세 이상 퇴역군인 중에서 비연금 가입자들을 정부주도의 저소득층지원프로그램인 BR1M(1Malaysia People’s Aid)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다. BR1M 대상자는 현금으로 1,200링깃을 받게 되며, 관련 예산은 8천5백만링깃에 달한다. 2016년 9월 말 기준 54억링깃이 지출된 바 있으며, 2017년 8월 기준 관련 지출액은 63억링깃으로 수혜자는 420만 가구에 3백만 명에 달한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총 720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The Edge 2017/10/21).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현금 보조금 지급은 포퓰리즘 정책의 성격이 짙다. 세계은행은 이에 대해 도시 거주자의 경우 물가인상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지적하고,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과 식품 구매 등에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7백만링깃을 소득 하위 40%에 소득세 감면 등의 형태로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1백5십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성지순례 특별 휴가 및 승진 조건의 완화 등의 당근책을 제시했다. 4개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의 폐지와 BR1M관련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등을 포함하는 등 물가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이 소득 불균형의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은행은 2020년~2025년 경 국민총소득(GNI)가 USD12,00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 불평등의 문제로 인해, 총인구의 약 절반은 이 소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World Bank 2017).

세수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적인 조세 감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정부 고위직 관료 출신 25명은 이른바 G25 보고서에서 조세제도 합리화와 더불어 법인세 감면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5%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법인세율은 24%이며, 자본금 250만링깃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18%이다. 태국과 베트남은 20%, 싱가포르가 18%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The Edge Market 2017/12/25). 그러나 법인세율의 격차가 이미 오래 지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외국인투자 유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정치경제 안정성, 투명성, 기업 친화적 규제환경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투명성의 결여가 오랜 과제였던 말레이시아의 경우, 1MDB 사건은 현직 총리가 관여된 최초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링깃의 가치 하락을 초래했다.

2016년 지역정세의 불안정에 따라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링GIT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1MDB가 USD17.5억에 달하는 채권디폴트선언을 계기로 링GIT의 약세가 더욱 강화되었다. 링GIT의 가치는 나집 취임 이후 20%로 절하되었다. 2017년 1월 3일 기준 환율은 달러 당 4.49링GIT을 기록했다. 정부는 링GIT 약세가 계속됨에 따라 경제도 현 환율에 적응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관망세를 보인 바 있다. 다행히 최근 경제회복 추세와 더불어 링GIT이 점진적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2월 29일 기준 환율은 미국 달러 대비 4.06링GIT을 기록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9.5% 절상되었다. 향후 경상수지 개선, 안정적 경제성장을, 안정적 이자율 정책 등이 링GIT 강세를 주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예상을 초과한 3/4분기 6.2%의 경제성장과 이자율 인상 전망 그리고 유가인상에 대한 기대감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2018년 초 중앙은행이 0.25% 안팎의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주요 은행인 CIMB Investment Bank Bhd 관계자는 2018년 말에는 미국 달러 당 3.95링깃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The Edge Malaysia Weekly 2017/12/18).

한편,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안정적 환율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7년 12월 29일 기준 말레이시아 외환보유고는 USD1,024억으로 전년 동기 USD945억에 비해 증가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7.2개월 수입액 또는 단기 대외부채 1.1배에 해당하는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경상수지 회복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Bank Negara Malaysia 2017/12/30). 말레이시아 정부 채권에 대한 외국인 매입 증가 추세도 외환보유고 증가와 환율개선에 기여하고 있다(The Edge Malaysia Weekly 2017/12/18). 그러나 FDI의 경우 해외투자유출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외환보유고의 순증가를 견인하는 요인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0년~2015년 FDI 유입액은 말레이시아 총 고정자본형성 대비 40%에 달한다.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2015년 기준 약 85만 명에 육박했으며 총수출의 35.5%를 차지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FDI에 따른 순이익이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2015년 제조업 투자액의 60%는 FDI에서 비롯되었다. FDI 유치 요인은 법인세 면제, 교육과 연구개발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 등에 기인했다. 인센티브에 따른 비용은 연간 약 100억~150억링깃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 세수 대비 6%~8.9%에 달하는 규모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고용효과 또한 감소하는 추세이다. 외국계 기업의 내국인 고용비율은 2011년 74%에서 2014년 68%로 감소했다(Shuhaimen et. al. 2017). 이는 비숙련 노동자의 해외유입에 따른 것으로 내국인 저

소득층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우려된다. 즉, 중간재 유입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는 R&D지출이 낮은 추세와 맞물려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주요 외국계 기업의 생산법인 폐쇄는 장기적 투자 유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통상산업부(MITI)는 12월 30일에 8개의 다국적 기업이 말레이시아 내 생산법인의 폐쇄를 결정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한국의 삼성을 비롯하여 루비콘테크놀로지, 시게이트테크놀로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암페놀, 선에디슨반도체 등이다 (Malaysiakini 2017/12/30). 2017년 8월까지 8개월간 약 2만6천 여 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했으며, 이중 약 76%는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했다(The Edge 2017/10/30).

#### IV. 국제관계

2017년에도 미얀마 로힝자 문제와 관련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계속되었다. 나집 총리도 2016년 12월 로힝자 비판 집회에 PAS의 하디 아왕 등과 함께 참석하여 미얀마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나집의 행보는 아세안 국가 간 내정불간섭 전통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다. 2017년 1월 나집은 국제이슬람협력기구(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OIC)의 특별 세션을 주관하고 로힝자를 위한 1천만링깃 지원 계획을 밝혔다. 12월 1일부터 방글라데시 로힝자 난민캠프에 병원운동을 시작했다. 병원 운영을 위해 350만링깃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말레이시아가 첫 사례이다. 아울러 2월에 이어 12월에도 약 56톤에 달하는 식품과 생필품을 미얀마-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의 난민에게 제공했다.

9월 9일 나집은 미얀마 내 로힝자족이 고문, 강간, 살인 등 조직적인 잔혹 행위에 노출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9월 미국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진 나집은 공동회견문에 로힝자족에 대한 폭력 중단과 인도적 지원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Malaysiakini 2017/12/30.).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로힝자족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로힝자 문제를 국내정치的手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슬람과 연관된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13대 총선을 1년 앞둔 2012년에는 가자지구 구호를 위한 긴급기금이 설치되었다. 9대 총선을 앞둔 1994년에는 보스니아 무슬림에게 난민지위 부여를 제안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가 1MDB 사건과 관련된 자산동결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14년 당시 나집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도 골프 회동을 갖는 등 친분을 과시한 바 있으나, 미국 법무부의 1MDB 관련 개입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바 있다. 나집은 트럼프 집권 이후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이슬람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가진 이후, 9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와 골프회동을 갖는 등 친분을 과시하는 등 주요 국내 언론 홍보용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나집은 미국에 약 USD200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영국의 메이(May) 총리와 회담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는 나집의 국제적 인지도를 활용한 농촌지역 공약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 발언에 대한 항의 시위에 나집이 직접 참여하는 등 이슬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또한 국내 정치적 포석의 성격이 짙다.

말레이시아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인프라 건

설 관련 투자가 증가했다. 8월 착공한 동해안철도(East Coast Rail Link)에는 중국 투자금 550억링깃이 유입되었다. Citi Research는 향후 20년간 중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 규모는 4천억링깃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The Edge Market 2017/12/29). UBS Evidence Lab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500개 기업 중 15%~25%가 아세안에 투자를 고려 중이며, 그중 90%가 말레이시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The Edge 2017/12/14).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공항(KLIA2)에서 북한의 김정남이 암살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북한과의 외교 분쟁을 겪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거부하고 부검을 결정하자, 북한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2월 20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주북한 자국대사를 귀국 조치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를 소환했다. 2월 28일 북한은 고위급 인사를 말레이시아로 파견했다. 북한은 한국의 영향력을 우려하여 공동 부검을 제안했지만, 말레이시아는 이를 거부하며 양국 간 갈등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3월 3일 유일하게 체포된 리종철이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3월 4일 북한대사 강철이 출국 조치되었으며 3월 6일 말레이시아는 북한에게 적용되었던 무비자입국 정책을 철회했다. 북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단행했다. 3월 8일 나집 총리는 북한을 김정남 살해 혐의로 처음 거론하였다. 북한 당국은 북한 내 말레이시아 국민을 출국 금지시키자, 말레이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말레이시아 내 북한 국적자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3월 30일 실질적인 교착상태가 풀리면서 북한 대사관 3인을 포함해 양국의 억류된 인사들의 출국이 허용되었다. 9월 말레이시아는 북한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말레이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외교장관 아니파(Anifah)에 따르면, 10월 말레이시

이는 주 평양대사 파견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 보수언론들은 이를 북한과의 단교로 단정하여 보도했다. 아니파 장관은 “북한과의 단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힘으로써 외교적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아울러 지난 2월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될 당시 많은 이들이 성급한 의견을 제시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자신은 감정이 격화될 때, “불길에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었다”라며,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표명했다(New Straits Times 2017/10/12).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 북한의 조치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강했다. 자국민의 억류 상황에서 북한 대사관에 대한 항의 방문과 그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은 주로 소수의 여권 핵심 인사들이 주도했다. 말레이시아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동참 요청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Parameswaran 2017).

## V. 전망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의 최대 명절인 설이 지나면 14대 총선을 위해 의회가 해산될 것이라는 예측이 점차 유력해지는 상황이다. 차기 총선은 여야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나집 정권은 탈세속주의를 표방하는 PAS와 연합하며 정치적 이슬람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선택할 만큼 말레이계 지지획득이 절박한 상황이다. 야당의 희망연합은 구태정치의 상징이었던 마하티르와의 연대를 선택할 만큼 개혁 열망을 담아 총선에 임하고자 한다. PAS는 총선의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상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3당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 득표에서 가장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인 정치변동을 견인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 만큼 여야 양 진영의 ‘약점들’만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 총선은 부정부패와 실정에 대한 신뢰 상실을 안고 있는 BN뿐만 아니라 분열과 핵심 지도자의 부재라는 약재를 안고 있는 야당 모두에게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결과만큼 이후 정국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전략적 차원에서 부추긴 탈세속주의와 정치적 이슬람은 이후 정국의 핵심 이슈이자 사회 갈등의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UMNO에게도 궁극적으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승패를 떠나 선거 과정에서 표심의 행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제와 외교 또한 국내정치의 수단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의 제조업 견인 경제모델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내 역할 역시 지속불가능한 총선 예산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주체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외교 분야의 경우, 한때 아세안 형성과 발전을 주도하며 중진국 외교를 주도했던 외교원칙의 복원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나집 총리 개인의 필요에 의한 무원칙적인 외교 행보 역시 국내정치의 왜곡된 단면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 정국은 말레이시아에 내재된 다양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이 응집, 응축된 만큼, 향후 국가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 Anand. Ram. 2013. “Najib Blames Polls Results on Chinese Tsunami.” *Malaysiakini*, 2013년 5월 6일.
- Bank Negara Malaysia(Malaysia Central Bank). 2017. “International Reserves of Bank Negara Malaysia as at 29 December 2017.” [http://www.bnm.gov.my/index.php?ch=en\\_press&pg=en\\_press&ac=4596&lang=en](http://www.bnm.gov.my/index.php?ch=en_press&pg=en_press&ac=4596&lang=en)
- CNBC. 2017년 9월 1일.  
<https://www.cnb.com/2017/09/01/the-fate-of-malaysia-politics-its-markets-and-prime-minister-najib-razak-may-hinge-on-palm-oil-farmers.html>
- Fadzell, Aiezat. 2016. “BN should take Muhyiddin’s party seriously.” *The Sun*, 2017년 8월 10일.
- Hammond, Joseph. 2017. “Controversial Indian Salafist a Litmus Test for Malaysia on Counterterrorism.” *The Diplomat*, 2017년 12월 8일.  
<https://thediplomat.com/2017/12/controversial-indian-salafist-a-litmustest-for-malaysia-on-counterterrorism/>
- Khaw Veon Szu. 2017. “The question for GE14 – who can balance the 4Rs?” *TheEdge*, 2017년 12월 18일.
- Lee, Hwok-Aun, “Malaysians want multiracial parties, but race-based policies.” *The Straits Times*, 2017년 8월 29일.

- Parameswaran, Prashanth. 2017. "What's Next for Malaysia-North Korea Relations?" *The Diplomat*, 2017년 10월 14일.
- Shuhaimen, Mohd Shazwan *et. al.* 2017. "Rethinking Investment Incentives." [https://www.bnm.gov.my/files/publication/qb/2017/Q3/p3\\_ba1.pdf](https://www.bnm.gov.my/files/publication/qb/2017/Q3/p3_ba1.pdf).
- Shukrimun, Alang Ibn. 2018. "Berfikir Gaya Mahathir." *Harakah Daily*, 2018년 1월 4일.  
<http://www.harakahdaily.net/index.php/berita/15-tanah-air/4635-berfikir-gaya-mahathir>
- Ting, Helen. 2017. "UMNO's hand in Malaysian Islamic law." *East Asia Forum*, 2017년 6월 6일. <http://www.eastasiaforum.org/2017/06/06/umnos-hand-in-malaysian-islamic-law/>
- World Bank. 2017. "Malaysia Economic Monitor, December 2017." <http://www.worldbank.org/en/country/malaysia/publication/malaysia-economic-monitor-december-2017>
- CNBC, 2017년 9월 1일.
- Free Malaysia Today*, 2017년 12월 24일.
- Malay Mail*, 2014년 6월 24일.
- Malaysiakini*, 2017년 12월 30일.
- Malaysiakini*, 2018년 1월 8일.
- New Straits Times*, 2017년 10월 12일

80 동남아시아연구 28권 1호

*The Edge*, 2017년 10월 21일.

*The Edge*, 2017년 10월 30일.

*The Edge*, 2017년 12월 14일.

*The Edge Market*, 2017년 1월 17일.

*The Edge Market*, 2017년 12월 20일.

*The Edge Market*, 2017년 12월 25일.

*The Edge Market*, 2017년 12월 29일.

*The Edge Malaysia Weekly*, 2017년 12월 18일.

*The Guardian*, 2017년 7월 6일.

*The Malaysian Insight*, 2018년 1월 10일.

*The Straits Times*, 2017년 1월 17일.

*The Straits Times*, 2017년 4월 16일.

(2018. 1. 15. 투고, 2018. 1. 18. 심사, 2018. 2. 4. 게재확정)

<Abstract>

## Malaysia 2017: The Rise of Political Islam

**KIM Hyung Jong**  
(Yonsei University)

**HONG Seok Joon**  
(Mokpo National University)

The 14<sup>th</sup> general election which should be held by August 2018 has been a dominant factor for Malaysian politics, economy, social changes and foreign policy in 2017. UMNO, the dominant party within the ruling governmental coalition, has focused on securing Malay support, voters which made them to sought political cooperation with PAS, Malaysia's Islamist opposition party. A consequent event followed by the strategic ties between the two parties is the rise of political Islam in Malaysia though PAS' 'Islamization' or 'desecularization' has never been adopted by UMNO. The rise of political Islam and Malay support have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next election, which increasingly enhanced the role of 3R of Malaysia politics; Race, Religion, and Royalty. The Pakatan Harapan (PH), the newly formed opposition coalition without PAS, has elected Mahathir Mohamad, the former Prime Minister, as its candidate for prime minister. Malaysian economy and foreign policy

seem to be subordinated to politics. Stabilizing ringgit and restoring economic growth enabled the Najib's government to reveal 'election budget' for 2018. Najib has spoken out Islam-related international issues including the Rohingya crisis and Jerusalem issue. It is to some extent the extension of domestic politics. The rise of political Islam will be a highly influential not only in the coming election but in the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in the aftermath of the election.

**Key Words:** Malaysia, Najib Razak, Mahathir Mohamad, Pakatan Harapan(RH), Islam, political Islam